

남원시, 거리특색 살린 건물번호판 '눈길'

고색 옛 의미 우물 형상화한 디자인 고색길 110가구에 설치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 기여 등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향상

남원시가 올해 고색길 110가구에 고색의 옛 의미인 우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사진)을 설치해 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획일적인 파란색 건물번호판은 단순한 주소 표기에 그치지 않고 자율형 건물번호판과 거리의 특색을 반영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모양, 크기, 재질을 자유롭게 선택해 거리의 개성을 살릴 수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남원에서는 고색길에 시범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과 거리 분위기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건물번호를 표현하고 싶다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자율형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도로명 주소는 2016년부터 지역특성을 살리고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하지만 설치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자율형 번호판 확산이 더딘 상태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확대 설치되면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



로 보인다"며 "시민 반응도 좋아 내년에는 고색길 특색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 브랜드화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순창군, 다양한 공연 준비...군민 문화욕구 충족

25일 '빨간모자와 숲속 친구들'·28일 재즈 페스티벌 등

순창군이 가을을 맞아 군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공연을 마련했다.

첫 번째 공연은 25일 열리는 '빨간 모자와 숲속 친구들'이다.

순창군 상주단체인 나니레가 선보이는 국악 뮤지컬이다. 지난달 종이컵 인형극에 이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공연이다. 대도시에서 보지 못한 공연을 지역에서 볼 수 있어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기대가 크다.

또 BOVO문화관광연구소 주관으로 전국 인디밴드들과 함께하는 재즈 페스티벌이 28일 개최된다. 전국의 재즈밴들이 순창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지역상권이 들쭉날쭉하고 있다.

10월에는 순창의 대표 축제인 제14회 순창장류축제를 비롯해 성악콩쿠르 대회, 순창국악원에서 진행되는 전국 국악대전, 서울 윈드앙상블의 일반인을 위한 '윈드스토리'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준비돼 있다.

다음 달 4, 5일 성악 콩쿠르의 본선 입상자들이 펼칠 성악 공연(5일)도 주목받고 있다.

이어 11월5일에는 서울 대학로 연극 '만선'이 순창군민들을 찾는다. 출연배우 지미리씨가 순창으로 귀촌하면서 이번 공연이 성사됐다.

'청소년 페스티벌'과 전 군민들과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공연이 피날레를 장식한다.



순창군이 가을을 맞아 군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공연을 마련했다. 하반기 문화공연 청소년 페스티벌. <순창군 제공>

황숙주 순창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위한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준비했다"면서 "2020년에는 일품공원과 중앙로 일대에서 버스킹도 준비하는 등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순창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고창군로컬잡센터-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 일자리 창출 협력 강화 '손잡는다'

고창군로컬잡(JOB)센터(센터장 김희진)와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하 인자위)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고창군로컬잡(JOB)센터는 지난 16일 전주 인자위 회의실에서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민의 소득 창출과 구인·구직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전북 지역 14개 시·군 구인·구직자 공동 발굴 및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고창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된다.

전북 인자위는 전북도 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인력양성 계획수립을 비롯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사업, 고용노동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 고용혁신프로젝트사업, 일학습병행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군산시, 시민감사관 35명 위촉...불합리한 행정 바로잡기

군산시가 시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행정을 감시하는 시민감사관 35명을 위촉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지난 7월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감사관 35명을 위촉했다.

군산시민감사관은 변호사, 세무사, 대학교수, 기술사, 사회복지 전문가 등 전문분야(16명)와 일반분야(19명)로 나눠 비상근 명예직으로 구성했다.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행정종합감사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각종 공사의 불편, 부당, 위법 행위 제보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 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 등 개선 건의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등 직무를 맡는다.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2년간 종합감사 또는 특정감사 등에 참여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정읍시, 21일 '책축제 달빛소풍'

시립중앙도서관 일원...북 콘서트 등 다채

정읍시는 21일 정읍시립중앙도서관과 상동 시민공원 일원에서 '책 축제 달빛소풍' <포스터>을 주제로 도서관과 축제를 개최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책 축제는 정읍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시민의 문화 향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참여한다.

시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로 새로운 독서 트렌드를 반영한 행사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형 뮤지컬은 '공룡야옹'과 풍선공원이 이어지고 진중권 작가의 '내가 추천하는 책'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문학을 노래하는 감성 밴드 '서울'의 북 콘서트도 펼쳐진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원한 가을은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여유롭게 읽고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라며 "상동 시민공원에 퍼지는 은은한 달빛과 조명, 잔잔한

음악과 강연으로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정읍시청 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전북대 등과 '마이스 프렌드리' 협약 마이스 산업 활성화·전문인력 양성 나서

익산시가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원광대학교·전북대학교·웨스턴라이프호텔과 마이스 프렌드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업무협약은 마이스 유치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미나, 학회 등을 익산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호텔은 마이스 산업, 관광의 수요창출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마이스 산업 유치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내 대학 및 호텔과 협력해 각종 마이스 회의의 유치를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